

대선구도 확정 안됐는데... 벌써부터 줄서기 시작되나

뉴스현장 / 광주 국회의원들 대선지지후보 커밍아웃 잇따라

민형배, 이재명 공개지지 이어 이병훈, 이낙연 지지 표명 때 이른 지지선언, 지역 정치권 분열 등 후폭풍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개 지지에 이어,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의 이낙연 대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일부 정치인의 '대선 후보 줄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역 정치인들이 "호남 민심을 충분히 듣고 지역발전 등을 고려한 뒤 행동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만남이 예정됐던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민주당 내에서 '제3 후보론'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론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의 행보가 구제화하는 4-5월께에는 지역 국회의원 과 정치권의 대권 진용이 갖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이병훈 의원은 광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선 이낙연 당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그 발언으로 인

해 일방적으로 돌팔매질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발언) 실망감이 컸고,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렸다"면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지사가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발언이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지역 정치권의 줄 세우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고, 평소 이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인 이 의원이 '반격' 형태의 지지발언을 서둘러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권 표심을 살피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력을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때마침 대권 주자 지지 발언이 잇따라 터져나오며 따라 지역 정치권 분열 등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라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을 정책을 통해 여권의 지지율을 높여야 더 나은 시대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은 가장 큰 축이며, 대선을 앞두고 '광주 정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개인적 지지여부를 성급하게 밝힐 경우 전체 민심에 혼동을 줄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한 20대 부부의 결혼식에 '깜짝' 주례를 섰다. 작년 한 행사장에서 처음 본 자신에게 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고 '돌발' 요청했던 커플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연합뉴스

돌발 요청 20대 부부와 약속 지킨 정세균 총리 '깜짝 주례'

설 앞두고 대선잠룡들 움직임 분주

이낙연 오늘·이재명 29일 광주방문

메시지 전달·지지율 반등 노려

임종석, 설 이전 출마 선언 전망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까지 일정 기간 정치적 휴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 잠룡들의 물 밑 움직임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결혼식 '주례'를 통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20대 예비부부의 결혼식 주례 요청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직 총리가 주례를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평범한 예비 부부와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는 미스터 스마일, 호빵맨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정 총리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 총리는 기회가 된다면 설 명절 이전 광주·전남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율이 아직 낮은 형편인 정 총리로서 대선 가도의 출발점이 호남 민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가 코로나 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시화된다면 차기 대선 구도는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29일 광주 방문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전달할 메시지 마련과 함께 상징적 일정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지사 측은 광주 민심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초 18일 예정됐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보편지급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이 있는데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겹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찌됐던 이 지사의 지역 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설 명절 이전 상당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양동시장을 둘러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대선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이 대표 측

은 광주 방문을 통해 호남에서부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위기에 빠진 이 대표를 결코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측은 '코로나 이의 공유제'를 더욱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이의 공유제가 80년 5월 광주의 대동정신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결코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 19 방역은 물론 경제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자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 대표 측에서는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주장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후폭풍이 최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선 도전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당내 586 및 친문 그룹 일부의 강권에 임 전 실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설 연휴 이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대선 도전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권교체" 47% vs "정권 유지" 39%

이재명 23%·윤석열 13%·이낙연 10%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호남서 이낙연 추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지난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내년 대선 관련 의견을 묻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에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11월 조사에서 47%였던 정권유지론이 12월 41%에 이어 또다시 2%포인트 줄어든 반면, 정권교체론은 11월 41%, 12월 4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유지' 81%·'정권교체' 9%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2%, 91%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65%, 55%로 과반이었다. 서울도 '정권교체' 응답이 47%로 '정권유지' (37%)보다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72%가 '정권유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0%로 집계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3%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의 6%포인트 급락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 선호도가 43%로, 이 대표(23%)를 크게 앞섰다. 이 대표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도 이 지사의 선호도(28%)가 이 대표(2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 무소속 홍준표 의원 3%,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1% 순이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